

보도시점 2025. 3. 25.(화) 17:00 배포 2025. 3. 25.(화) 17:00

재외동포청, 입양동포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

- 서비스지원센터(광화문)에 상담인력 배치...언어소통 불편함 해소, 가족찾기 등 종합상담 제공
- 이상덕 청장 “입양동포와 모국간 연계 강화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 추진할 것”

- 국내외 입양동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창구가 25일 문을 열었다.
 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입양동포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한다.
 - 전담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센터에 마련됐다.
- 전담창구 개소식은 이상덕 청장,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,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, 해외입양인연대의 김종우 이사장과 스웨덴 입양동포 출신인 루이스 린데베르그(한국명 김성미)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 -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청장 기념사, 축사, 기념촬영, 테이프 컷팅, 언론사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.
- 전담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, 그동안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 민원 접수에 불편함을 겪은 입양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 - 국내외 입양동포가 창구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면 상담원은 내용을 파악해 입양동포의 민원 업무를 유관기관과 연결하여 민원내용을 상호 공유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.

- 또한, 경찰청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아래 추진하는 ▲유전자 검사 및 친생부모찾기, ▲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관한 종합상담을 제공해 입양동포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.

□ 이외에도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해외 입양동포의 안정적 모국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입양동포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며,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입양동포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.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“고도 경제성장 이면의 아픈 역사 속의 전세계 17만 해외입양동포들을 이제 재외동포청은 보듬고 돌봐야할 시점이다. 오늘의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설은 작은 출발이지만 해외입양동포와 모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” 라고 말했다.

붙임 : 행사사진(행사 종료 후 배포) 3부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인권과	책임자	과장	김 채 영	032-585-3213
		담당자	서기관	이 현 준	032-585-3217
		담당자	주무관	변 승 우	032-585-3216